

6월 1일부터 2주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2주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에 앞서,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시~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또한,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한편, 노동부는 지난 5월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2.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단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81) 이근배 (044-202-8882) 홍현종 (044-202-8945)
담당 부서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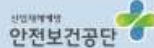
-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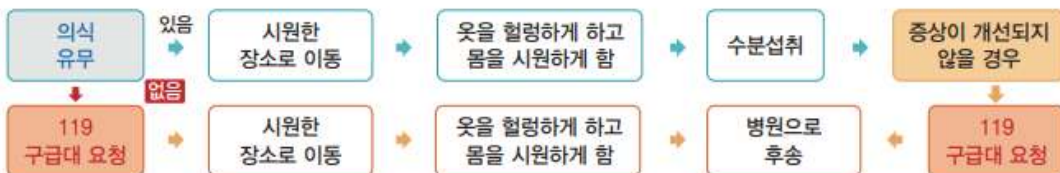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적정 개선 필요



냉방장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적정 개선 필요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적정 개선 필요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적정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적정 개선 필요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적정 개선 필요



119 신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적정 개선 필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적정 개선 필요



그 외 예방조치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적정 개선 필요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적정 개선 필요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적정 개선 필요

→ 휴식시간 추가 배정 등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폭염작업 시간 단축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적정 개선 필요